

다산포럼

언어폭력과 폭력의 언어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국정원 청문회가 끝났다. 그런데 청문회를 마쳤는데 답답했던 가슴이 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새 상처를 하나 더 얻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청문회에서 국회 의원들 사이에서 오간 말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의 책임자들이 이 일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뻔뻔하게 뺏어놓은 말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말은 생각이나 육체, 사랑과 원망을 담는 그릇이고, 사람들 간에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말은 천냥 빚을 갚는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 묵은 한을 눈녹이듯이 녹이는 신비한 힘도 가져올지만 상대방의 가슴을 도려내 흉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는 언어란 특정한 사회적 조건, 권력관계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구사되며, 지배

자가 자신의 적이나 반대세력을 차별화시키고, 낙인을 찍는 것은 '상징 폭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상에서 우리는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강자의 말이 사회구성원을 납득시킬 수 있으면, 말은 사회의 양기하고 설기 매듭이나 음어리를 풀어주는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되지만, 권력자가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한다면 그 것은 강압이 된다. 이 경우 권력자의 상황 규정, 낙인, 강변 등은 그것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사회적 소통의 길을 막아 버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정작 참을 휘둘러야 할 애당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를 동원해야 할 여당과 국정원, 경찰 층 증인의 말 공세가 더 부각되었다. 특히 부당한 상부의 수사 죽소지시를 고발했던 권은희 수사과장은 바로 여당 의원들의 거친 폭력의 표적이 되었다.

새누리당의 김태호 의원은 "마음 속에 (지지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나라 대통령이 문제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라고 그녀의 공인으로서의 행동을 정치향향으로 험하하였으며, 내면의 생각을 들추어내라고 강압했다.

김진태 의원은 "수사 담당 검사가 좌의 종복이라 믿을 수가 없다"고 겨울 수사 자체를

일거에 무시해 버렸다. 조명철 의원은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해 "광주의 경찰이나,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공격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의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

'말이 안 되는' 답변은 원세훈, 김용관 증인의 변명에도 반복되었다. 그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박근혜 후보를 편드는 댓글 작성과 찬성 표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친 공격과 반대 표시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우겼다. 급기야 원세훈은 정권 비판자가 모두 '종북'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오웰(Orwell)이 말했듯이 '흑백'이라는 말은 반대편에게 이 말을 적용할 때는 명백한 사실도 흑을 백이라고 우기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되고, 자기 당원에게 요구될 때는 당의 요구대로 흑을 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성심을 요구한다.

그들은 경찰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은 권은희 과장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그녀의 사상과 양심을 드러내라고 압박하는 언어폭력을 가했고, 그녀의 행동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좌절과 울분은 쌓여갈 수밖에 없다.

언어가 소통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그려졌듯이 이제 폭력이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다.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세상이고, 권력자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선거 직전의 여론을 돌리기 위해 퍼트린 수만, 아니 수백만 개의 인터넷 공작을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둘러댔다.

한국사회에서 '좌의' '호남' 비하는 오직 강자들만이 사용하는 지배의 언어다. 그래서 이런 언어게임은 권력행사이고, 곧 상징 폭력이 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리한 권리관계의 지형을 활용해서 언어폭력을 구사하였다.

이처럼 흑과 백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상대는 애초부터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흑이 절대로 백이 될 수는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상대는 제작의 대상일 따름이다. 그 어떤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어도, 아무리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되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강제력과 미디어를 장악한 권력자들이 언어폭력을 구사하는 세상에서, 침묵과 무조건 복종, 낙인과 색깔 덧씌우기를 강요당한 사람들의 좌절과 울분은 쌓여갈 수밖에 없다.

언어가 소통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그려졌듯이 이제 폭력이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다.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세상이고, 권력자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社說

해룡산단 코앞에 농공단지 개발이라니

순천시가 산단 조성 부지 바로 옆에 농공단지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도 되지 않은 산단 옆에 비슷한 성격의 농공단지를 허가하는 게 상식 밖의 일이라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산단 사업자는 물론 주민, 전남도, 광양만경제 자유구역청 등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순천시가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농공단지 부지는 애초 산단에 포함됐다가 '사업성'을 이유로 제외된 곳이어서 갑자기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순천시는 2015년까지 해룡면에 조성될 예정인 해룡일반산업단지 2단계(60만 8000㎡) 부지 옆 배부락신을 해룡선 월농공단지(14만 5000㎡)로 조성하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지역 건설·토목업자로 구성된 그업체와 중국업체 등 2곳과 이 농공단지에 2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

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그업체 측은 부지 내 사유지 절반 이상을 매입한 뒤 지난 7월 시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주변 주민들은 물론 관계기관들도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순천시는 "투자하겠다는 데 말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자체장의 투자 실적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자체가 투자실적에 급급해 마구잡이로 산단을 조성하다 보니 수요 예측에 실패하고, 미분양에 허덕이는 사례를 수없이 봤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 데 조성 중인 산단 바로 코앞에 다시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순천시는 지금 당장 인허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기어코 추진하겠다면 타당성 조사를 제3의 기관에 맡겨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명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위기 안중에 없는 기아차 노조

기아자동차 노조가 9월 들어서도 3일 간 부분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업 일정이 장기화되면서 광주공장의 62만대 중산프로젝트 차질과 함께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과 29일, 30일 주·야 2시간씩, 29일에는 주·야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데이어 4일과 6일에도 주·야 4시간씩 파업을 하기로 했다.

노조의 투쟁 강도가 높아지면서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공장만 하더라도 52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손실액만 910여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부품을 공급하는 광주지역 협력업체의 피해도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특히 3000억 원을 들어 추진 중인 광주공장의 62만대 중산프로젝트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7월 중산체제에 들어갔으나 한 달여 만에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해져 같은 달 차용한 400여 명의 인력 활용은 물론, 증산에 맞춰 설비

를 늘린 250여 협력업체의 도미노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기아차 노조의 임금협상안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으나 상당수 무리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도 그렇고,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건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8647억 원 가운데 1조1594억 원을 달라는 게 기당한 일인가.

지금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었던 건설업과 조선업이 사실상 몰락한 마당에 지역 제조업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광주공장마저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침체는 불가피해진다.

노조는 기아차가 오늘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상식선에서 사족과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고, 파업을 철회하는 게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

無等鼓

낡은 영화 필름이 돌아간다. 우스꽝스러운 움직임에 관객들은 박장대소, 그런데 화면 속 배우들은 말이 없다. 간단한 자막이 흐를 뿐 영화음악도 딱히 들리지 않는다. 적막한 영화에 숨을 불어 넣는 건 현장에서 연주되는 리라이브 음악이다.

오래된 무성영화들은 피아노와 드럼, 아코디언 연주를 통해 새옷을 입는다. 상영작은 1920년대 무성영화 전성기로 이끈 버스터 키튼의 작품 '설록 주니어'.

영화 감독이자 배우로 활동한 버스터 키튼은 무표정한 얼굴과 아크로바틱 슬랩스틱 코미디를 구사, 칠리 채플린과 더불어 무성영화시대 최고의 코미디 배우로 이름을 날렸다.

영화 솜길을 불어넣는 연주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나원진과 김다인, 그리고 드

럼 연주자 김훈씨다. 그들이 어떤 즉흥 연주로 영화의 매력을 살려낼지 살恹다.

공연 장소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세월의 먼지가 고스란히 쌓인, 올해로 지어진 지 100년 된 양립동의 오웬기념관(우월순 사택)이다. 광주에서 처음 만나는 놓치기 아까운 공연이다.

/김미은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양동옥의 S 스토리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여성 호르몬의 은밀한 전략

준히 증가해서 배란 바로 직전에 정점에 도달했다가 월경이 시작되면서 하강했다. 배란 바로 직전, 즉 여성의 다음 세대로 유전 인자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가장 높을 때 성욕 역시 높아진 것이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몇 명의 여성에게 어떤 두 시점에, 평소와 똑같은 걸음걸이로 무대를 걸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장면을 녹화했다. 그런 다음 미혼 남성들에게 한 화면의 오른쪽과 왼쪽에 두 여성의 걸음걸이를 동시에 보여주며 어떤 걸음걸이가 더 매력적인지 선택하도록 했다. 이때 화면 속에 보이는 두 여성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남성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여성의 신체를 음성으로 조작했다.

여성들은 두 차례에 걸쳐 무대를 걸으면서 본인들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실험에 참가했던 남성들의 대다수가 오른쪽 여성의 걸음걸이가 더 매력적인지 선택하도록 했다. 이때 화면 속에 보이는 두 여성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남성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여성의 신체를 음성으로 조작했다.

여성들은 두 차례에 걸쳐 무대를 걸으면서 본인들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실험에 참가했던 남성들의 대다수가 오른쪽 여성의 걸음걸이가 더 매력적인지 선택하도록 했다. 이때 화면 속에 보이는 두 여성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남성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여성의 신체를 음성으로 조작했다.

그 이유는 바로 배란기에 있다. 임신이 가능한 배란기에 여성의 걸음걸이가 더 매력적이라고 응답하는 비도가 높았다. 여성은 배란 직전에 혈증 여성 호르몬 수치가 가장 높은데,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부 결과 혈색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보여주며 어떤 걸음걸이가 더 매력적인지 선택하도록 했다. 두 사진을 성인 남녀에게 보여주며 더 매력적인 여성의 걸음걸이였는데 말이다. 남성들은 "걸을 때 어깨를 펴고 손동작도 더욱 당당하다", "더 곤란한 영향력에 관해 물끄러든 것은 언제 가장 성욕이 높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들은 여성 참가자들에게 성욕을 느낄 때마다 달력에 표시하게 했다. 무려 두 해 동안 표시된 성욕을 월경주기에 따라 그래프로 그려보니, 여성의 성욕은 배란이 가까워짐에 따라 꾸

며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진 하나를 고르게 했다. 놀랍게도, 여성의 월경주기에 따라서 그려지는 상대가 달라졌다. 배란기의 여성들은 턱이 넓고 각진 얼굴의 더 남성적인 얼굴에 끌리는 반면, 배란기 이후 여성들은 턱이 좁고 둥근 얼굴의 더 여성적인 얼굴에 끌렸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기 때문에 남성 남성이 자녀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지 혹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골고루 따져본다. 그래서 임신이 가능한 배란기 때는 남성호르몬이 물씬 배어 있는 강한 남성을, 배란기 이후에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남성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여성들이 자각할 수 있지만, 월경주기에 따라 성행동의 변화가 드물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성욕은 임신 가능성이 높을 때에 더 매력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여성의 성욕은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란기에 가장 낮고 임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월경 전후에 가장 높다는 연구도 여럿 있는 것처럼, 사회 문화적인 요인 역시 영향을 받는다. 또 우리가 이성 상대를 선택할 때, 에스토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수준보다는 성격, 가정환경, 지적 수준, 경제력, 취미, 종교 등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무의식은 생물학적 신호에 반응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영국 앤드루 대학 연구진은 한 남성 얼굴 사진을 컴퓨터 기법으로 더 남성적으로 보이도록 혹은 더 여성적으로 보이도록 다시 가지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변화 시켰다. 그 사진을 뜯은 여성들에게 보여주

기고

연극 '전우치'서 '문화수도' 가능성은 기대한다

무대의 여건이 입체적이기는 하나 고정된 계단식 구조이고 광활하여 배우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막이 오르자 박진감 넘치는 북소리와 함께 역동적인 배우들의 액션 연기가 실제 상황을 볼沸게 하였다. 우려했던 무대의 구조적 문제는 배우들의 기동성과 소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극의 정체성을 구현하였다.

누구 하나 불비한 관람여건 때문에 이석하나 소란은 피우는 일은 없었다. 배우들의 열연에 관객 모두가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었다. 지도층에 대한 불신 등 작금의 각종 사회문화현상에 염증을 느낀 관중들이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권선징악의 장면에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극적인 장면마다 환호와 박수를 이어졌고 이는 배우들의 등줄기에 흐르는 땀을 식히는 활동으로 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 제작

과정도 감독, 배우 등 관계자들의 봉사적 활동이 절대적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시의 지원도 있으나 그 내용은 미미한 정도라고 한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충족하고 수익자 부담을 시키자니 성과에 대한 확신은 부족할 테고. 그러나 좀 더 욱심을 부려 지혜를 짜내야 할 것 같다. 우선 배우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정된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는 없을까?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기 위하여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준비할 수는 없을까?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은 해당지역의 삶의 질과 수준을 대변한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예향 광주에서 우리시가 '문화수도'를 표방한 것과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은 다행한 일이지만 명실 공히 더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创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